

‘뚝’ 그친 아이 울음 소리... ‘또’ 3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

통계청, ‘2023년 3월 인구동향’ 발표
1분기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사망자 2.9만명...역대 두 번째로 최대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2만1138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0.81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1년 전보다 8.1%(1864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1981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소치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년4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줄었다.

◆1분기 합계출산율 0.06명 감소한 0.81명

올해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4116명)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6명 감소한 0.81명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1년 전과 비교해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도 전년 동기 대비 25~29세 3.6명, 30~34세 6.7명으로 각각 줄었다. 자녀 출산 시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3.73년으로 전년보다 0.03년 감소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71년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3월 사망자 2.9만명...역대 두 번째로 최대

3월 사망자 수는 2만8922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5.2%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피크였기 때문에 그 저효과로 올해는 감소폭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7명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전년보다 14.2%(1만4738명) 감소했다. 1분기 조사망률은 7.1명으로 전년보다 1.1명 줄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0명, 여자는 1.5명 감소했다. 특히 85세 이상에서 전년 동기 대비 남자는 35.8명, 여자는 40.5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늘면서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7784명을 기록했다. 1분기에는 2만4760명이 자연감소했

다.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년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 증가율 역대 최대...코로나 기저효과

3월 혼인 건수는 1만8192건으로 1년 전보다 18.8% 늘었다. 2020년 3월 1만935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2건으로 0.7건 늘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전년보다 18.9%(8590건) 증가했다. 증가율은 코로나19의 기저효과로 월과 분기 단위 모두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폭으로 따져도 2007년 1분기(1만1970건) 이후 16년 만에 최대다. 임 과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년도에 혼인 건수가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기별 역대 건수로 따지면 2022년(4만

5374건), 2021년(4만8014건)에 이어 3번째로 가장 적은 수치다.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일반혼인율은 남자 9.7건, 여자 9.6건으로 전년보다 모두 1.5건 늘었다. 연령별 혼인율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3월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4.7%(373건) 오른 8255건으로 집계됐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27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62건) 늘었다.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일반이혼율은 남자 4.1건, 여자 4.0건으로 전년에 비해 모두 0.1건 증가했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녀 20대 이하,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동거기간 5~9년에서 전년 대비 이혼 건수가 가장 크게 늘었고,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전년보다 대구, 인천 등 11개 시도에서는 늘고, 서울, 부산 등 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변용일 기자



샤넬 클래식백 1500만원 넘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23일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샤넬코리아는 이날 대표 제품인 ‘클래식 플랩백’을 포함한 가방·지갑·신발 등 인기 품목의 판매 가격을 최대 12% 상향 조정했다. 24일 오전 서울 시내 백화점에 샤넬 핸드백이 진열되어 있다.

‘로봇 가전’...에코백스, ‘원봇 W1 프로’ 출시

‘양방향 크로스 오토·스프레이’ 기술 적용



로봇가전 브랜드 에코백스는 창문로봇청소기 ‘원봇 W1 프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원봇 W1 프로는 에코백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창문용 로봇청소기다. 양방향 크로스 오토·스프레이 기술로 내장된 60ml의 물탱크에서 물이 자동으로 분사돼 부착된 특수 크세

사 걸레로 유리창 위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닦아준다. 신속·심화·집중의 세가지 청소 모드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전용 앱을 통해 청소의 시작과 종료, 일시정지, 청소 모드, 물 분사 등을 손쉽게 설정·변경할 수 있다. 급수, 배터리, 청소 상태 알람 기능이 모두 자동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창문에서도 사용하는 창문로봇청소기 안전에도 신경썼다. 2800Pa의 강력한 흡입 팬을 탑재해 먼지 흡입은 물론 유리면과 밀착돼 안정성을 더했다. 방전시에도 30분 간 창문에 부착된다. 80kg까지 지탱하는 시건장치가 내장돼 있다. 가장자리를 자동으로 탐지해 프레임이 없는 유리에서도 안전하게 청소가 가능하다. 뉴스시스

“노동자 63%, 내년 최저임금 월 230만원 ↑ ...시급 1만1000원”

민주노동연, 최저임금 설문조사 분석결과 발표

노동자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원 이상을 원하고 있다는 노동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급 기준으로 1만1000원 이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국 제각경기 및 최저임금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자들의 실제 요구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지난 3월20일~4월28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전체 응답자 7509명 중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임금 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50만원 이상’(시급 1만2000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은 31.9%로 가장 높았다. 시급 1만2000원은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이기도 하다. 이어 ‘월 230만~249만원’(시급 1만1000~1만1900원)이 30.6%로, 총 62.5%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원 이상을 꼽았다고 민주노동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월 210만~229만원’(시급 1만50~1만900원) 25.4%, ‘월 210만원 미만’(시급 1만50원 미만) 12.1% 순이었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230만~249만원’(2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월 250만원 이상’이 30%대로 가장 많았다. 한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84.8%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시급 9620원, 월 201만580

원)과 관련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부족’ 46.0%, ‘매우 부족’ 38.8%였고 ‘적당’과 ‘충분’은 각각 10.2%, 4.9%에 그쳤다. 연구원은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시사한다”며 “가구 규모가 커지거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현행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자 10명 중 7명(69.6%)은 지난해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물가상승률’(43.7%), ‘생계비’(37.5%) 순이었다.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 폭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광주·전남 소비심리 5월 소폭 올랐으나 1년째 기준치 이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5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달보다 상승했지만, 1년째 기준치를 밑돌았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3년 5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중 90.7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102.3을 기록한 이후 ▲6월 93.2 ▲7월 80.6 ▲8월 85.4 ▲9월 87.3 ▲10월 83.4 ▲11월 82.1 ▲12월 84.3 ▲2023년 1월 86.4 ▲2월 85.9 ▲3월 85.6 ▲4월 89.9로 ▲5월 90.7로 1년째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인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2003~2021)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CSI(83)는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하고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생활형편 전망CSI(87)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3)는 전월과 같았고 소비지출전망CSI(108)는 전월 대비 1포인트씩 하락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인 현재경기판단CSI(59)는 전월대비 4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65)는 전월 대비 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71)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금리수준전망CSI(111)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현재가계저축CSI(87)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하고 가계저축전망CSI(91)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CSI(102)는 전월 대비 2포인트, 가계부채전망CSI(101)는 전월 대비 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CSI(137)는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92)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하고 임금수준전망CSI(112)는 전월과 동일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지역 도시가구 중 600가구(응답52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소비자동향조사를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농심, 포테토칩 잭슨페퍼로니맛 출시

농심이 스낵 신제품 ‘포테토칩 잭슨페퍼로니맛’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잭슨피자는 미국식 피자의 맛을 제대로 구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 피자 프랜차이즈다. 포테토칩 잭슨페퍼로니맛은 포테토칩에 잭슨피자의 인기 메뉴 중 하나인 페퍼로니 피자 맛을 입힌 제품이다. 포테토칩 특유의 고소한 맛과 짭짤한 페퍼로니 맛의 조화가 특징이다. 농심은 인기 프랜차이즈와 콜라보를 통해

이색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입맛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잭슨피자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사이에서 꼭 먹어야 할 피자집으로 알려진 인기 브랜드인 만큼, 젊은 세대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테토칩의 바삭한 식감과 한입 가득 느껴지는 잭슨피자의 페퍼로니 피자 향을 즐겨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